

전시제목 : 획 : Stroke

참여작가 : 도널드 마티니, 박선기, 권오봉, 김정환

전시기간 : 2025년 3월 13일 (목) – 4월 12일 (토)

전시장소 : DIA Contemporary (디아 컨템포러리) / 서울 종로구 율곡로1길 37 2층

“ 획의 흐름 속에서 예술의 에너지를 마주하다 — 각 작가가 탐구한 획의 힘과 생명력을 경험하는 특별전 ”

“ 한국과 미국 작가 4인이 탐구하는 ‘획’—그 속에 담긴 다층적 의미와 예술적 에너지 ”

“ 도널드 마티니(Donald Martiny), 2년 만의 국내 복귀전—신작 6점 최초 공개 ”

“ 박선기 작가, ‘획’ 전시를 위한 신작 선보이다 ”

## 1. 전시 소개

디아 컨템포러리(DIA Contemporary)는 2025년 3월 13일부터 4월 12일까지 중견작가 4인의 그룹전 <<획 Stroke>>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획"의 빠르고 표현적인 움직임의 본질을 포착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붓의 물리적 동작과 제스처에서 비롯된 에너지를 탐구하는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강한 바람의 힘이나 손의 빠른 움직임처럼, 예술 작품에 담긴 힘과 유동성을 상징하며, 관람객에게 역동적이고 몰입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작품은 평면과 설치작품으로 구성되며, 총 20여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널드 마티니의 작품은 회화와 조각 사이 어딘가 존재한다. 작품과 물리적으로 연결된 순간의 제스처에서 포착된 강렬한 힘과, 신체를 사용하는 대형 액션 페인팅을 통해 내면의 충동을 물리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캔버스 틀을 넘어 예술에 대한 본질적인 개념을 성찰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은 관람객과의 감정적 교류를 유도하며, 예술적 경험을 활성화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킨다.

박선기는 전통적인 조각의 개념을 넘어서, 숯, 아크릴 비즈, 구슬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입체적인 형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간의 시각과 감성을 탐구한다. 숯이라는 재료를 선택해 자연과 인간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며, 형태를 구성하고, 매다는 방식을 통해 작품과 공간이 상호작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전시 주제인 "획"의 주제에 맞추어 제작된 작가의 신작은 관람자의 시점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각적 체험을 선사하며, 보는 이의 감정적 교류를 불러일으키도록 유도한다.

권오봉은 자유로운 선과 강렬한 붓질을 통해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며, 다양한 재료로 독창적인 마티에르를 구축해왔다. 그의 작품은 규칙과 불규칙이 교차하는 추상적 화면을 형성하며, "선의 회화" 혹은 "낙서의 회화"로 불린다. 형식적 제약을 넘어, 그리기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제시하고, 일상적 도구로 자유롭고 불규칙적인 에너지를 표현한다.

김정환은 침묵을 주제로, 먹과 규사를 이용한 흑백의 조화 속에서 고요와 침묵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작가의 작품은 서예에서 시작해 비가시적인 대상을 가시화하며,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유를 전달하고자 한다. 출품된 7점의 작품 속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는 고요를 상징하며,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작업 과정을 통해 깊은 침묵의 세계를 탐구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견작가 4명이 "획"이라는 주제를 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같은 시대적 흐름을 지닌 네 명의 작가들은 다른 지역, 환경적 영향을 배경으로 유사해보이는 주제를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 작가들은 같은 동시대미술사에서 같은 시간의 흐름속에 있지만, 모두 다른 매체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작업한다. 우리는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가들의 예술적 에너지와 창조적 탐구의 본질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

## 2. 작가 소개



### 도널드 마티니 (b. 1953)

도널드 마티니는 '현재'라는 시간성에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몸짓, 즉 순간의 제스처로부터 포착된 강렬한 힘에 대해 탐구한다. 작품을 그리는 행위 그 자체를 예술로 표현하는 작가는 사각의 캔버스 틀에서 벗어나 갤러리(혹은 미술관) 벽면에 작품을 칠한 듯이 거대한 붓놀림을 부조 작품을 선보인다. 대형 액션 페인팅의 형식으로 예술가 내면의 충동을 물리적으로 표현한 작가는 예술에 대한 작가의 본질적인 개념을 성찰한다. 작가의 거대한 붓놀림과도 같은 작품이 지닌 역동성으로부터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공간은 예술적 경험의 공간을 활성화한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관찰자로서의 관람 경험을 넘어 작품과 감정적 교류를 시도하고 순간적이고 본능적인 작품과의 유대감을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도널드 마티니는 비주얼 오브 아트 스쿨, 아트 스튜던트 리그, 뉴욕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다. 작가는 런던 The Courtauld Institute, 코웰 Falmouth Museum, 웨인 카운티 FWMoA, 미들랜드 Alden B Dow Museum of Art, 미국 윌밍턴 The Cameron Art Museum 등 해외 우수한 미술관 및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미국 피닉스 미술관, 크로커 미술관, 에이몬 카터 미국 미술관, 툴레인 대학교 뉴컴 미술관, FWMoA, 람보르기니 박물관, 이탈리아 산타가타 볼로냐제,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등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박선기 (b. 1966)

박선기는 원근법을 기반으로 숯, 아크릴 비즈, 구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조각을 만들며 인간의 시지각을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감성과 시각에서 출발한다. 자연과 인간이 가진 문화를 접목하고자 선택한 숯은 그의 대표 재료 중 하나이다. 작가는 숯이라는 재료가 가진 물성이 모여 만들어내는 형태를 선보이며, 공중에 띄우는 방법으로 작품을 공간에 직접 개입시켜 공간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관람자의 시점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작가는 단순히 물질로 재현한다는 전통적인 조각 개념을 탈피하여, 슬라이스 기법의 부조 작품과 대형 설치 작품들을 통해 조각에서 경험하지 못한 시각적 유희를 선사하며, 철학적이고 시각적인 입체 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박선기는 중앙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국립미술원에서 유학하였다. 1994년 갤러리 서호를 시작으로, 갤러리 밀라노 U.C.A.I.(1998), 베를린 Galerie Artinprogress(2002), 마드리드 갤러리 EDURNE(2004), 김종영 미술관(2008), 스위스 Galerie Andres Thalmann(2011), 우양미술관(2015), 김세중 미술관 (2018), 인당뮤지엄(2020) 등 33회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서울, 부산, 취리히, 로스앤젤레스, 상하이, 홍콩, 두바이 바젤 등에서 열리는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작품은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제주 본태박물관, 포항시립미술관, Oká 재단, 설화 박물관, 신세계 백화점, 메르세데스 벤츠, 삼성물산, 삼성전자, 롯데백화점 등 주요 공공기관과 기업에 소장하고 있으며, 2006년 제9회 김종영 조각상을 수상하였다.



**권오봉 (b. 1954)**

권오봉은 자유로운 선과 역동적인 붓질을 통해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독창적인 마티에르로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구축해왔다. 그의 작업은 직관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독특하고도 강렬한 선의 조형 세계를 펼쳐보인다.

그의 작품은 회화의 중심 요소인 '선(line)'에 경계를 두지 않고, 선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규칙과 불규칙이 교차하는 추상적 화면을 형성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자유로운 선과 강렬한 붓질의 필력을 바탕으로 "선의 회화" 혹은 "낙서의 회화"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작가는 형식적 제약이나 정신적 의미를 넘어, 그리기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무의식적인 창작 과정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제시한다. 나무, 갈퀴, 못과 같은 일상적 도구를 활용해 자유롭고 불규칙적인 울동감을 표현하며, 재료의 특성과 작업 속도에 따라 표면의 질감과 여백을 즉흥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 그의 작품은 역동적 에너지와 깊은 감흥을 동시에 전달한다.

권오봉은 대구출생으로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 도쿄 도논 갤러리를 시작으로, 윤갤러리(1986), 인공갤러리(1989, 1990, 1992), 우순갤러리(2005), 리안 갤러리(2009), 인당뮤지엄(2018), 대구미술관(2024)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서울, 대구, 독일, 파리, 싱가포르 등에서 열리는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23년 제24회 이인성 미술상을 수상하였으며,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인당뮤지엄 등에 주요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김정환 (b. 1969)**

김정환은 침묵을 주제로, 먹으로 이루어지고 채워진 화면을 만들어낸다. 서예를 기반으로 시작된 그의 작업들은 색채 추상인 동시에 흑백의 조화 아래 화면을 구성한다. 작품 속 검정색은 빛을 흡수하는 고요를 품고 있는 존재로, 작가는 비가시적인 대상을 가시화 시키는 과정에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우연과 필연이 교차하는 작업과정에서 경험한 본인의 순간들에 대한 공유하고자 한다. 그에게 '침묵'이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미처 담아내지 못한 사유의 전달이다.

김정환은 홍익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한 후 《자기만의 침묵》(오포미술관, 경기도, 2024), 《자기만의 침묵》(갤러리MHK, 서울 2024), 《묵음(默吟) Poetry with Silence》(갤러리 기타노자카, 일본, 2018), 《묵음(默吟) Poetry with Silence》(백악미술관, 서울, 2016), 《기억의 날인 Signatures of the memory》(한전아트센터 갤러리, 서울, 2014) 등 다수의 기관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그의 작품은 대유미디어 그룹, 아주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라마다 호텔, 중국의 말관미술관, 김대중재단 등에 소장되어 있다.

3. 작품이미지



도널드 마티니

셀레네, 2025

알루미늄에 폴리머 및 분산 안료

213.3 x 190.5 cm



도널드 마티니

이리스, 2025

알루미늄에 폴리머 및 분산 안료

101.6 x 152.4 cm



권오봉

무제, 2023

캔버스에 유채

165x133.5cm



권오봉

무제, 2023

캔버스에 유채

165x13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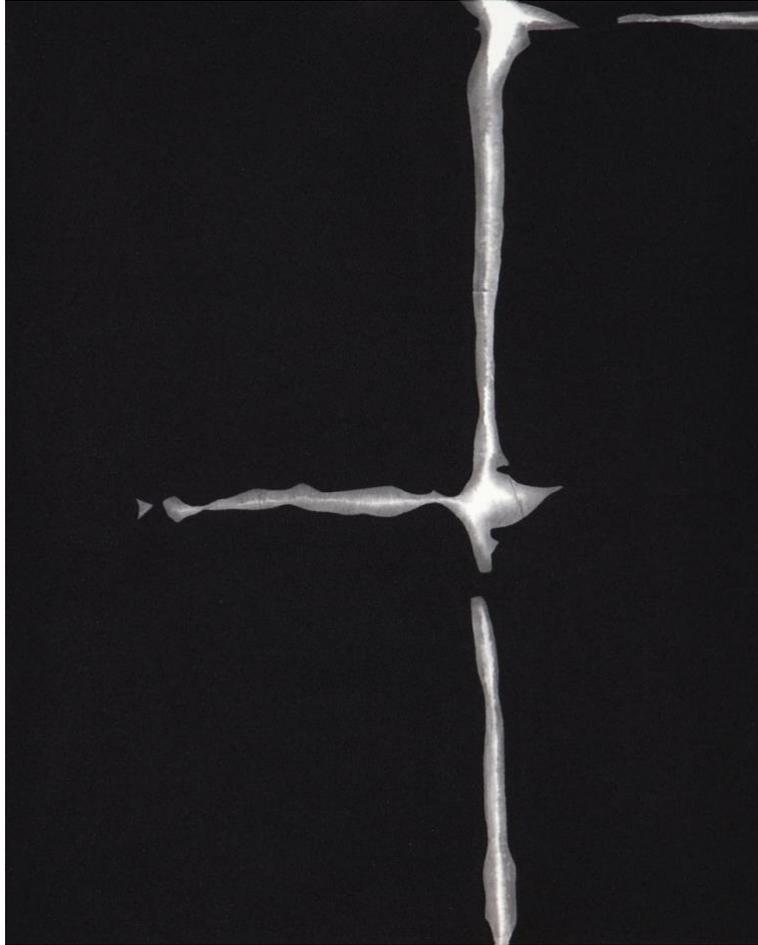


김정환

묵음 25-01-06, 2025

린 위에 아크릴, 규사 혼합

112.1x14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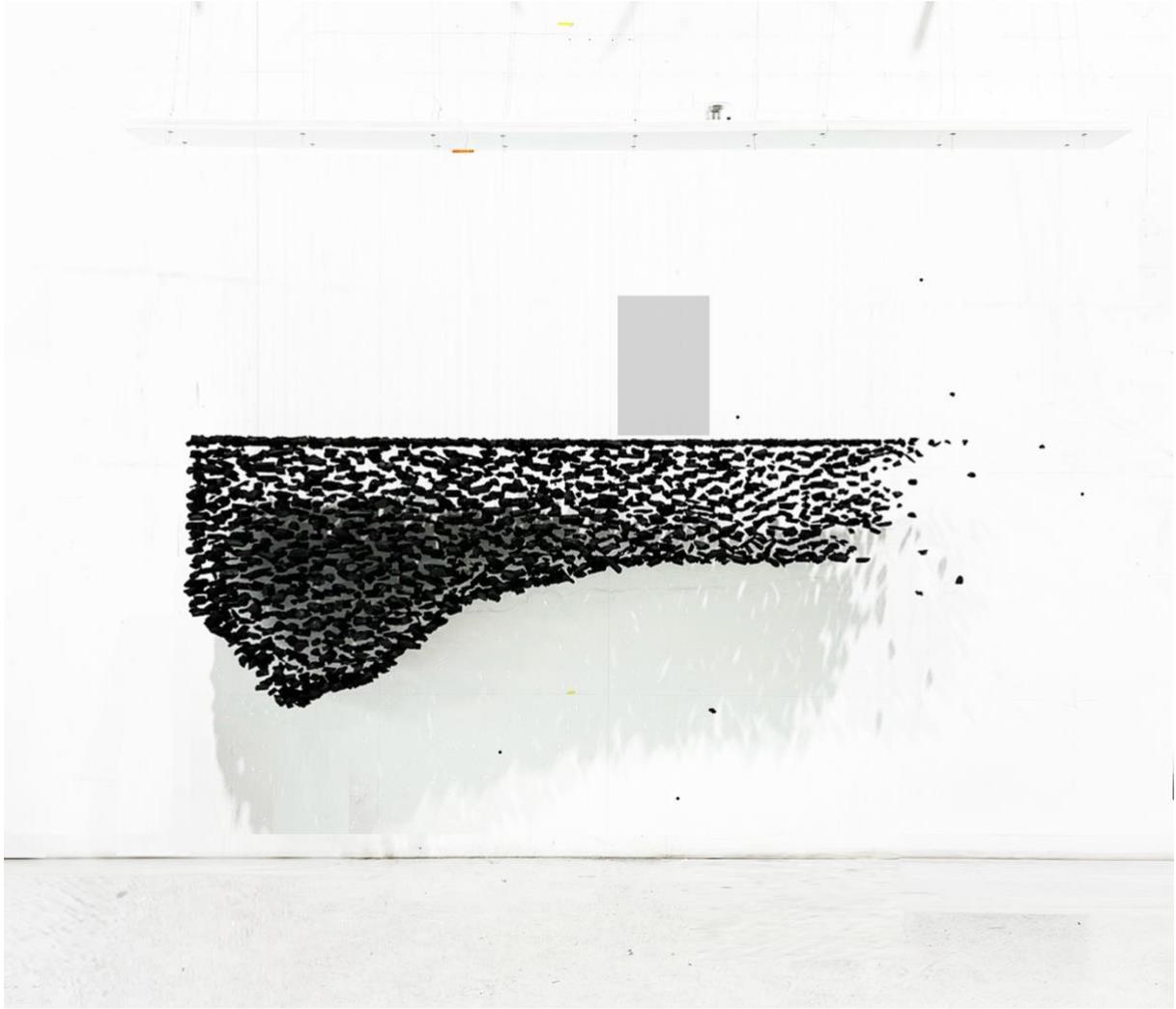


김정환

묵음 24-02-20, 2024

캔버스 위에 한지, 아크릴, 규사 혼합

91×72.5cm



작품 스케치, 작품 및 설치 이미지 추후 업데이트 예정

#### 4. 전시 서문

##### '획' 획을 긋다.

다가오는 전시 "획(Stroke)"은 빠르고 표현적인 움직임의 본질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붓의 물리적 동작과 제스처의 에너지를 포괄하며, 강한 바람의 힘이나 손의 빠른 움직임과 같이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힘과 유동성을 상징한다.

붓의 사용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은 동양 문화에서 "획"이라는 단어는 매우 깊고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음과 손이 하나가 되어 붓으로 그려낸 선이나 흔적을 뜻하며, 역사적으로 "획을 긋다"라는 표현은 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중요한 순간을 표시하는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견 작가 4명이 이 주제를 해석하고 체현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각 작가는 고유의 관점을 통해 움직임과 붓의 선이 지닌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을 표현할 것이다. 또한 관람객은 통제된 기법과 예술적 표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우러진 몰입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획"의 유동적이고 자발적인 본질을 체감하고, 의도적인 창작과 예술적 자유의 상호작용을 반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전시는 평소 보기 드문 중견 작가들의 독창적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획이라는 주제 아래, 도널드 마티니, 권오봉, 박선기, 김정환 작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 언어와 창작 세계를 선보인다.

창작의 과정에서 획은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의 점이나 선 속에 작가의 삶과 깊은 탐구가 깃들여 있으며, 이는 단순한 표면의 흔적을 넘어 생명과도 같은 표현으로 탄생한다. 형태나 감정의 은유를 넘어서는 획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존재로 구현된다.

도널드 마티니는 역동적인 붓질을 통해 신체적 몰입을 경험하게 한다. 폴리머를 직접 부어 넓고 힘 있는 제스처로 형상화하여 캔버스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렬하면서도 유연한 시각적 경험을 만들어낸다.

권오봉은 자유로운 선과 역동적인 붓질을 통해 회화의 본질을 탐구한다. 다양한 재료를 통해 마티에르를 드러내고, 작가의 직관적인 행위를 작품에 담아내며 자신만의 선의 조형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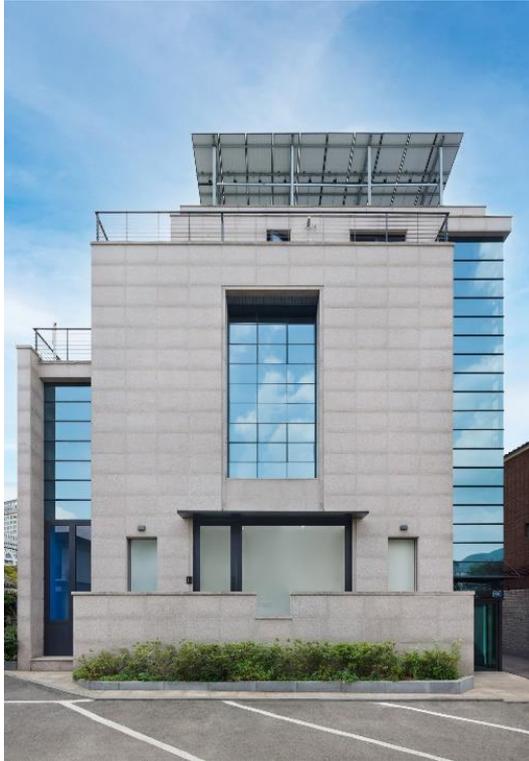
박선기는 차분한 붓을 통해 깊은 성찰과 명상적 과정을 담아낸다. 붓으로 이루어진 점과 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 건축,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를 시각적으로 탐구하며 다채로운 입체 세계를 선보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연의 물

성과 인간의 내면을 조화롭게 연결한다.

김정환은 검정색을 주조색으로 삶아 보이지 않는 침묵과 그 안에 깃든 모호함, 그리고 낯설음을 함축하고 있다. 작가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경지의 초월성을 침묵으로 표현하며, 재료의 성질을 드러내어 인간의 내재된 감정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이번 전시는 관람객이 "획"의 다층적 의미를 사색하고, 각 획의 내재된 힘, 작품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명력, 그리고 이들 작가의 창작 표현을 정의하는 역동적 에너지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각 획이 생명과 움직임, 깊은 예술적 탐구를 어떻게 담아내는지 목격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 5. 갤러리 소개 | Discover Inspiring Artistry



**Discover 발굴** | 2010년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갤러리 휴 (Huue)는 지난 15년 동안 싱가포르 현대미술 현장의 최전선에서 있으며, 창의적인 예술을 통해 변혁적인 힘을 경험하였다. 지난 십수 년간 섬세하게 기획된 전시를 통해 총 200명에 이르는 한국 작가들을 싱가포르에 소개하며, 한국 현대미술과 공예 작품을 발굴 및 육성하여 동시대 현대미술을 선도해 왔다. 2024년 서울에 Discover Inspiring Artistry(이하 디아, DIA)를 개관하여, 현대 미술의 탐험과 혁신적인 변화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한다. 디아(DIA)는 예술의 경계를 넓히고 창의적이며 신중하게 선별된 기획 전시를 선보인다. 그리고 누구나 디아에서 예상치 못한 예술의 만남과 흥미로운 미적 발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Inspiring 영감** | 창의성에는 한계가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영감의 세계는 감동을 일으키고 깊은 생각을 유도한다. 디아는 독창적인 예술적 재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예술계의 혁신과 영감 그리고 지속적인 진화를 촉진하는 비전 아래 예술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전시를 선보이고자 한다. 또한 실험적으로 도전하고 의미 있는 예술적 대화를 유도하는 활기찬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트렌드나 편협된 시각에서 벗어나 예술에 대한 접근성과 포괄성을 제한하는 장벽을 적극적으로 허물고, 다채로운 분야와 관점의 예술가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그들의 예술적 표현을 풍부하게 육성하고 지원한다.

**Artistry 예술성** | 디아에서는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예술가들이 지닌 우월함과 창의성이 최대한 돋보일 수 있는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작가들의 비전과 혁신을 담아 각별하게 선정된 작품과 함께 무한한 예술적 표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기획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각 전시와 작품에 담긴 열정을 함께 감상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으며, 단순한 전시공간 이상의 역할을 넘어 진정한 예술 애호가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작품이미지의 저작권은 작가에게 있습니다. 작품 이미지 사용시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요청드립니다.

© Artist and DIA Contemporary

**[작품이미지 및 전시 전경]**

구글드라이브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소를 첨부해드립니다.

<https://shorturl.at/8CU6A>

**[문의]**

담당자 : 곽나희 | [nahee@diacontemporary.com](mailto:nahee@diacontemporary.com)

**디아 컨템포러리 DIA Contemporary**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1길 37, 2층 03062

[www.diacontemporary.com](http://www.diacontemporary.com) | [info@diacontemporary.com](mailto:info@diacontemporary.com) | +82 2 2235 2822